

광주·전남 대학 수시·정시 정원 3000명 못 채웠다

추가모집 상위 50개 대학 중 지방권 49곳...광주·전남 7개 대학 포함
정원 40% 못채운 곳도...학령인구 감소 매년 추가모집 30%씩 늘어

광주·전남 지역대학이 2023학년도 수시·정시 모집을 통해서도 채우지 못한 정원이 3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종로학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집계한 2023학년도 전국 17개 시·도별 대학 추가모집 최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80개 대학에서 1만 7439명을 추가모집했다.
추가모집 대학 수는 전년(157개) 대비 23개 늘었고 인원은 지난해(1만7959명)보다 520명 줄었다. 신입생 정원이 다소 줄어든 영향이다.

광주·전남지역 추가 모집 대학은 각각 9개교였으며 인원은 광주(1554명)와 전남(1475명)을 통틀어 모두 3029명에 달했다. 광주와 전남은 추가모집 인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경북(2889명), 부산(2144명), 전북(1842명)에 이어 4위와 5위를 차지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한 탓에 광주·전남을 비롯한 지방대학이 직격탄을 맞았다. 추가 모집 지방권 대학은 112곳으로 지난해(96개)보다 16개 증가했다. 지방권 대학에서 전체 추가모집 인원의 89.3%

(1만5579명)가 발생했다.
추가 모집 발생이 가장 많은 상위 50개 대학 중 49개 대학이 모두 지방권 소재 대학이었다. 광주·전남 7개 대학이 여기에 포함됐다.
광주 A대학의 경우 신입생 정원 722명의 40.7%에 달하는 294명을 추가모집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남 B대학도 1741명 정원의 19.5%인 341명을 추가로 뽑아야 한다.
광주전남지역 국립대도 예외가 아니어서 모두 420명의 추가모집 인원이 발생했다.
광주지역 대학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 영향으로 매년 20~30%씩 추가모집 인원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 교직원들이 신입생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신입생이 없어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는 서울 소재 대학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지역 대학의 추가모집 인원은 올해 767명으로 지난해 386명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 대학별 추가모집은 28일까지 진행된다. 추가모집 정원은 모집이 마감되는 날까지 계속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방대의 경우 급격하게 학령인구가 감소하는데다 학생들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 때문에 더 지속적으로 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들은 수시·정시모집에서도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함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추가모집을 진행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피부암 걸린 배전 노동자 3년여 만에 산업재해 인정

피부암에 걸린 전기 배전 노동자가 3년여 만에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21일 전남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얼굴 피부암(기저세포암)으로 2019년 12월 산업재해 신청을 한 한전 협력업체 노동자 A(63)씨가 지난 20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승인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보합급여 결정 통지서를 받았다.
2019년 당시 8년 차 전기 배전 노동자였던 A씨는 같은 해 7월 광주근로자건강센터에 “얼굴에 좁쌀만 한 사마귀가 생기고, 뜯으면 피가 잘 멈추지 않는다”며 찾아왔다.
A씨는 의료진과 노조의 자문을 거쳐 2019년 12월 산업재해 신청을 했고, 3년 2개월만인 지난 20일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광주 북구 우유배달로 독거노인 안부 보살피

광주시 북구가 독거 어르신에게 우유를 배달하며 안부를 살피는 사업을 진행한다.
북구는 22일 (사)한국나눔연맹과 업무협약을 맺고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관내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주 3차례 우유를 배달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질병, 장애, 사회적 고립 등으로 건강과 안전이 우려되는 독거 어르신 200세대를 우유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우유 배달원들은 배달된 우유가 2일 이상 방치되는 등 신변 이상 징후를 발견할 경우 즉시 119안전센터와 북구청에 신고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단순 우유 지원을 넘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한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뜻깊은 나눔을 실천해 주신 (사)한국나눔연맹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

전남교육청, 735명 인사 4급 승진 3명·5급 승진 2명

전남교육청은 21일 4급 승진 3명을 포함한 3월 1일 자 일반직 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명단 21명〉
인사 규모는 총 735명으로, 승진 169명 전보 114명 명예퇴직 등 27명 신규임용 60명 직제개편 365명 등이다.
목포도서관 독서문화부장에 여서경 도교육청 행정과 조직법무팀장이, 목포대 파견에 노병수 정책기획과 사학정책팀장이, 전남미래교육재단 파견에 김종만 재정과 재산관리팀장이 4급으로 승진 발령됐다. 역량평가 등을 통해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2명이 5급으로 승진했고, 5급 10명이 전보 및 분청 전임 인사로 자리를 옮겼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소송 불가’ 합의한 기준 초과 분양가 대법 ‘합의 무효’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했어도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가격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했다면 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A씨 등 아파트 주민 132명이 B 건설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 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B사가 지은 공공 건설 임대주택(아파트)을 지난 2013년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고 분양 전환하기로 했고, 그해 11월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주민들은 분양 가격을 64㎡ 면적은 4200여만원, 77㎡ 면적의 아파트는 5200여만원으로 하고 이 가격과 관련한 민·형사상 청구권을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를 했다. 이후 주민들은 법원이 정한 기준보다 1000만원 이상 비싸게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며 건설사가 100만원씩이라도 돌려줘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주민들이 부제소 합의를 한 만큼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각하했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분양 전환 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은 강행 법규에 해당한다”며 “부제소 합의로 인해 ‘계약이 강행 법규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강행 법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아주 얹어 버림)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그 부제소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라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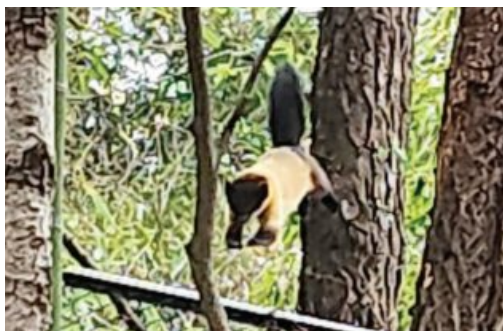


광주 경신여고 ‘365-스터디룸’ 개소식
광주시 북구 용봉동 경신여고에서 21일 오전 ‘365-스터디룸’ 개소식이 열렸다. 독서실과 카페가 결합된 자치학습공간인 ‘365-스터디룸’은 광주시교육청의 핵심사업으로 2월 안에 광주지역 16개 고교에서 운영을 하고 8월에는 19개 고교까지 확대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도심 방림동 숲서 멸종위기동물 2급 담비 발견

무등산서 서식하다 내려온 듯

광주 도심에서 최근 멸종위기동물 2급인 담비(사진)가 발견됐다.
지난 17일 오전 광주시 남구 방림동 설월여고 인근 숲에서 담비 두 마리가 청설모를 사냥하는 장면이 광주시민에게 목격돼 영상에 담겼다.
영상은 설월여고 직원인 김선희(40)씨가 촬영했다. 영상에는 담비 한 마리가 울타리 위에 서서 사냥감을 찾아 두리번거리자, 그 사이 다른 한 마리가 나뭇가지 사이를 톡톡퉑 뛰어들며 찾아와 그 옆에 앉는 모습이 담겼다.
김씨는 “학교 뒤편 숲에서 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나길래 고양이인가 하고 봤는데, 노란 담비 두



마리가 노는 모습이 보였다”며 “사냥하러던 청설모가 도망가자 담비들도 유유히 숲 속으로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소 동물을 좋아해서 담비를 바로 알아

봤는데, 광주 도심에도 사는 줄은 몰랐다”며 “멸종 위기종이 눈앞에서 뛰노는 모습을 보니 신기하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이범기 야생생물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사무국장에 따르면 이 담비는 무등산 산자락에서 서식하다 도심까지 내려온 것으로 추정된다. 담비가 사람 있는 곳까지 내려와 노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것이 이 사무국장 설명이다.
이 사무국장은 “설월여고 인근 환경이 깨끗해서 담비가 찾아온 것인지, 겨울철 먹이가 없거나 무등산 환경이 파괴돼 도시까지 밀려 내려온 것인지 확실치 않다”며 “광주시내 담비 서식지나 서식 환경에 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과 함께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자연과 만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
수 목 장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수 목 장 의 장 점

- 반영구적 사용가능
- 관리의 간소화
- 낮은 관리비
- 자연과의 동화
- 후손들의 부담 감소

※ 윤달 이장 상담 가능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메모리얼 가든

24시간 연중무휴
☎ 062-464-3466